

“천상 판따라...나의 존재 이유는 노래”

“혼자 노래를 만들어보고 밴드와 연습하는 시간이 아직도 가장 행복해요. 천상 ‘판따라’라서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하하.”

가수 안치환(60)은 노래가 마음속에서 즐거움을 생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1980년대 대학 노래패 활동을 거쳐 1989년 솔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40년 가까이 저항가수로 활동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지적해왔다. 꾸준한 음반 작업을 이어온 덕에 정규 앨범은 어느덧 열 장을 넘겼다.

경력이 쌓이며 노래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온 법도 하지만, 안치환은 자신의 열정만큼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안치환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작업실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나의 존재 이유는 곧 노래”라며 “질리거나 지루해하지 않고 음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했다.

안치환은 지난 3~4년간 작업한 노래들을 모아 다음 달 중순 정규 14집 ‘인간계’를 발표한다.

앨범에는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오늘도 또 노동자가 죽었다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담은 ‘개념연예인’ 등 인간 세상의 복잡다단한 모습을 드러내는 노래 16곡을 담았다.

안치환은 “모든 대상이 곧 내가 노래를 해야 할 대상과 같다”며 “고고하게 이야기하면 인간계 위에서 세상에 소외된 곳,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노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와 비판을 담은 노래도 앨범에 여럿 담겼다. 안치환은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 이러한 곡들을 발매할 수밖에 없었지만, 노래를 만드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고 돌아봤다.

그는 “시대가 각박하고 암울했던 만큼 노래도 날카로워지고 각박해졌다”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 노래도 모아봤는데, 내년 정도에 앨범을 하나 더 내고 싶다”고 말했다.

안치환은 음악 감상 환경이 변화하고 유튜브

가수 안치환, 다음달 14집 ‘인간계’ 발매

“위로 필요한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노래”

40년 저항가수로 활동 사회 부조리 지적

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저항가요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하며 자신을 잃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안치환은 “유튜브에서는 낯것과 같은 콘텐츠가 인기를 얻지만, 그것이 노래가 갈 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튜브는 내 노래를 모으는 아카이브 정도로만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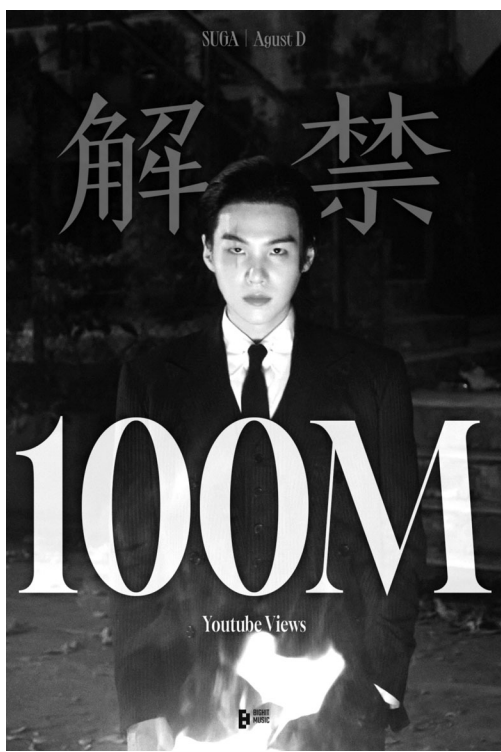
“저항가요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의 생리를 따라 자기 진영의 이익만 취하고 상대방은 안중에 없는 노래는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안치환의 목표는 열심히 살아온 중장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다음 달 대구, 서울, 광주를 돌며 개최하는 단독 콘서트에서도 자신의 대표곡과 신곡들을 들려주며 관객과 소통할 계획이다.

안치환은 “우리 세대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노래를 듣고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세상의 모양이 다르듯 좋아하는 것도 다르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가능한 한 오래 기량을 유지하며 관객들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안치환은 노래가 히트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작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싱어송라이터라면 자신의 목소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내가 노래를 꾸준히 쓰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자가 진단을 통과하는 한 계속 노래할 겁니다.” /연합뉴스



BTS 슈가 ‘해금’ 뮤직비디오 유튜브 1억뷰

그들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해금’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1억뷰를 달성했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14일 밝혔다. 이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5시7분께 조회수 1억 건을 넘어섰다.

슈가의 솔로곡 뮤직비디오가 1억뷰를 돌파한 것은 ‘어거스트 디’(Agust D), ‘데취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해금’은 슈가가 지난 2023년 4월 발표한 솔로 앨범 ‘디 데이’(D-Day) 타이틀곡이다. 국악기 해금의 소리를 활용한 힙합 장르 곡으로, 슈가는 국악기 해금과 ‘금지된 것을 푼다’라는 중의적 표현으로 자유라는 화두를 던졌다. /연합뉴스

80년대 추억 속으로 출발합니다~



오라이~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 3.3% 시청률로 출발

1980년대를 배경으로 버스 안내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3%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14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영된 JTBC 새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 첫 회 시청률은 3.3%로 집계됐다.

1회에서는 멀미를 달고 살면서도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는 고영례(김다미 분)와 기 세고 예쁜 신입 버스 안내양 서종희(신예은)가 만나는 이야기가 담겼다. 버스 안내양 합숙소에서 기강을 잡으려는 권해자(이민지)가 종희에게 어려운 야식 심부름을 시키자, 영례가 종희를 몰래 도우면서 둘의 우정이 시작된다.

여기에 부유한 집안 아들이면서도 반항심에 사로잡혀 권투대회에 나가는 한재필(허남

준)이 돌고 엮이면서 삼각관계를 예고했다. 세 사람의 이야기보다도 약 40년 전인 1980년대 정겨운 풍경이 더 눈길을 끌었다.

옛날 100번 버스를 비롯해 토근과 회수권을 걷는 빨간 모자를 쓴 안내양,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던 옛 모습도 생생하게 담겼다.

영례가 밤에 몰래 공부하겠다고 성문종합 영어를 읽고, 종희 손에 이끌려 다방에서 음악을 신청해 듣는 모습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1980년대 추억을 엿볼 수 있었다.

배우들이 본인보다 10살가량 어린 캐릭터를 연기하느라 교복을 입은 모습이 다소 어색하게 다가온다는 점은 옥에 티다.

김상호 PD는 최근 제작발표회에서 1980년대에는 20대가 지금 30대처럼 외모가 성숙했던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연쇄살인 다룬 넷플릭스 ‘로드’...손석구·日 에이타 출연

한일 합작 만화 ‘푸른 길’ 원작

연쇄살인범을 쫓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경찰이 공동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 ‘로드’가 제작된다.

넷플릭스는 최근 오리지널 시리즈 ‘로드’에 한국 배우 손석구와 일본 배우 나가야마 에이타(永山瑛太·과거 활동명 에이타)가 출연한다고 밝혔다.

손석구와 나가야마 에이타는 각각 한국과 일본 형사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온몸이 뒤뜰린 시신과 함께 글귀가 발견되는 유서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이를 함께 조사하게 된다. 이외에도 김신록은 재일교포 사업가, 최성은은 사건을 파헤치는 정부 요원,



손석구

나가야마 에이타

정재영은 의문의 남자로 등장할 예정이다.

한일 합작 만화 ‘푸른 길’이 원작으로, ‘D.P.’와 영화 ‘차이나타운’을 만든 한준희 감독이 연출한다. 시리즈 공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 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